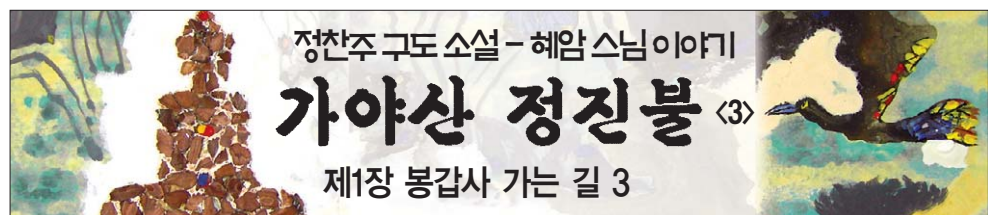


“밤낮으로 부질없는 번뇌망상 일으키기에 괴로워”



각안 스님의 설법을 들으며 사면불을 한 분 한 분 참배하는 동안 합박눈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다. 허공을 가득 메운 합박눈의 군무(群舞)는 신기투처럼 사라졌다. 너무도 순식간에 연출된 광경이었으므로 대연 거사는 합박눈이 꿈과 현실을 넘나든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했다. 합박눈이 허공에서 나풀거렸다기보다 한 순간 변화무쌍한 사건으로 지나쳤다는 느낌이 들었다. 합박눈의 출현과 소멸이 사건이라면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직 드러나고 사라진 실상을 받아들이는 것만 가능할 뿐이었다.

“거사님, 무얼 그리 골똘하게 생각하십니까.”
 “장자의 호접몽(胡蝶夢)을 생각했습니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를 보고 꿈에서 깨어난 뒤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몰랐다는 그 얘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사라진 합박눈이 장자의 나비와 같습니다.”

봉갑사 맞은편 산의 중앙에도 봉정교 입구에서 보았던 붉은 것발이 하나 꽃혀 있었다. 풍수가들이 말하는 봉황의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갑사는 봉황이 응시하는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셈이었다. “저는 봉(鳳)자와 인연이 깊습니다. 태어난 고향은 보성군 복내면 원봉이었고, 해암 큰스님을 15년 동안 시봉한 해인사 원당암도 비봉산 자락에 있었으며, 지금 살고 있는 봉갑사도 천봉산 품안에 있습니다.”

하늘의 잿빛구름장이 살얼음이 깨어지듯 갈라지고 있었다. 움직이는 구름장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빛기둥처럼 뻗더니 잠시 후에는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봉황의 머리에 꽃힌 붉은 것발이 더욱 선명하게 펼쳐졌다.

그러나 적멸보궁 아래 7여대 4보살이 자리한 곳까지 달려온 햇살이 계속 머물 것 같지는 않았다. 겨울 날씨는 세상의 일처럼 시시각각 종잡을 수 없었다. 비가 내리더니 눈이 오고, 눈이 흠날리는가 싶더니 햇살이 비추고 바람이 불었다. 출현과 소멸을 파도치듯 반복했다.

“거사님, 이 사면불 밑에도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까.”

“해암 큰스님 사리가 모셔져 있다는 말입니다.”
 대연 거사는 비로소 변덕스러운 겨울날씨가 던져준 상념에서 깨어나 물었다.

“아닙니다.”
 “어떤 분의 사리입니까.”

“부처님 진신사리 100여 과가 모셔져 있습니다.”
 대연 거사는 믿기지 않았다. 각안 스님에게 잘못된 것 같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부처의 진신사리가 봉갑사 적멸보궁에 봉안돼 있다니 금시조문이었다. 대연 거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투로 다시 물었다.

“스님, 부처님 진신사리가 이곳에 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1백여 과나 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모신 것이 아니고 봉갑사 큰스님의 상좌 분 중에 천 일기도를 여러 번 하신 스님이 계십니다. 금산사 백운암에 계시는 우성 노스님인데 그분의 뜻에 따라 이곳으로 모신 것뿐입니다.”

“그 노스님은 왜 당신이 모시지 않고 스님께 기증한 것입니까.”

“미안마 불교성지를 순례하시다가 그곳의 고승으로부터 받은 진신사리라고 합니다. 봉갑사 복원불사를 보시고 마음을 내신 것 같습니다. 인연 따라 진신사리가 오고간 것이지 제가 욕심을 낸다고 될 일입니까. 하하하.”

각안 스님은 크게 소리 내어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대연 거사는 문득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2500년 전에 열반한 부처의 몸에서 나왔다는 저 100여 과의 진신사리가 어떤 연유로 미안마로 옮겨졌다가 다시 우성 노스님에게 전해졌고, 또 지금은 봉갑사로 왔다는 것인지 그 경로가 몹시 궁금했다. 그뿐 아니었다. 저 100여 과의 사리가 부처의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그러한 사실을 기록한 명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호기심이 솟구쳤다.

“이곳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니 놀랍습니다.”

“거사님이 놀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처음 이곳으로 부처님 사리를 모셔올 때 봉갑사 대중들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부처님 진신사리일까 하고 말입니다.”

“스님께서는 확실하다는 말씀이군요.”

“진신사리를 모시는 날 하늘이 답을 내려주었습니다.”

대연 거사는 각안 스님이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하여 답답하기조차 했다. 하늘이 답을 주었다니 그것은 답변이라고 할 수 없었다.

“하늘이 어떻게 답을 주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답을 주었다고 할까요.”

“부처님 진신사리라고 생각하면 진신사리가 되는 것이고, 진신사리가 아니라면 진신사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진실은 하나일 뿐이지 두 가지의 견해로 갈리지 않습니다. 불법은 시비를 초월합니다. 그대로 여여할 뿐입니다. 해암 큰스님께서는 마음을 내지 말라 했습니다. 일어나는 내 마음을 없애는 것이 도(道) 공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밤낮으로 부질없는 번뇌 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대연 거사는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어떻게 하늘이 답을 주었다는 것인지 각안 스님의 시원한 대답을 듣지 않고는 적멸보궁을 내려가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각안 스님, 하늘이 무슨 답을 주었는지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제야 각안 스님이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러더니 수첩 앞장을 폈다. 수첩 속에는 적멸보궁의 사진이 한 장 끼어 있었다.

“사진을 보시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면불을 찍은 사진이군요.”

“그렇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둥근 무지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에는 사면불 위로 달무리 같은 둥근 무지개가 떠 있었다. 순간, 대연 거사는 부처의 진신사리에 대한 의혹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의혹이



그림 · 최문정

“일어나는 내 마음을 없애는 것이 道 공부 진신사리 의심하니 하늘이 무지개로 답해”

해소됐다기보다 진신사리라는 믿음과 진신사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하나가 돼버린 듯했다.

“하늘에 둥근 무지개가 출현하니 나타나자, 진신사리일까 하고 반신반의하던 스님과 재가신도를 모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야! 하고 환희심을 냈습니다. 그 순간 진신사리에 대한 진실은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스님, 진신사리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일이 부질없다고 느껴집니다. 좀 전에 해암 큰스님께서 망상을 일으키니까 괴로워진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새삼 가슴을 찡니다.”

적멸보궁을 내려올 때는 대연 거사가 앞서 걸었다. 가파른 산길이었지만 눈이 쌓이지 않고 녹아 미끄럽지 않았다. 봉갑사에서는 지장전에 망자의 위패를 만난 동안 봉안할 모양인데, 각안 스님이 그 계획을 의욕적으로 말했다. 망자도 불법의 인연을 지어 생사윤회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님은 봉갑사를 안내하겠다고 따라 나섰지만 대연 거사는 결과적으로 스님의 짧은 법문을 들은 기분이 들었다. 하늘은 다시 낮게 가라앉고 있었다. 먹물이 번지듯 칙칙하게 변했다.

“스님, 해인사로 언제 떠나실 겁니까.”
 “오늘 중 아무 때라도 가면 됩니다. 승용차로 해

인사까지는 여기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큰스님 제사는 내일 아침 사시(巳時)에 지내니까요.”

“저는 봉갑사에서 좀 더 머물러 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방을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방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제 처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연 거사는 법당 쪽으로 돌아와 각안 스님에게 고개를 숙여 합장했다. 각안 스님이 베푼 호의에 대한 답례이자 다음에 또 뵈자는 인사였다. 그러자 각안 스님이 물었다.

“아참, 원당암에서 노스님을 뵈고 출가의지를 껴 었다고 했는데, 그 스님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안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스님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스님께 범명을 여쭙보지 못했으니까요.”

“큰스님과의 인연으로 원당암에서 며칠씩 머물다 가십시오만 그때 계신 노스님이 어떤 분이었는데 저 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노스님이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큰스님 속가 동생 분 같기도 하지만 누구라고 단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속가 동생 분도 출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태호 스님이요. 큰스님 제사날이

되면 원당암에 오시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키는 어땠습니까.”

“큰스님처럼 작달막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닙니다. 태호 스님은 큰스님과 달리 키가 크신 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스님과 같이 정진하셨던 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솔명 동자가 다가와 원당암 감원스님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알렸다. 아마도 내일 치르는 해암 스님 제사 관계인 듯했다. 각안 스님이 요사채로 가는 동안 대연 거사는 솔명 동자에게 물었다.

“각안 스님이 은사스님 같은데.”

“여섯 살 때 됐지요. 원당암에서 살다가 스님을 따라서 봉갑사에 들어왔어요.”

“원당암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럼요. 제가 좋아서 절에 남았어요. 여러 절을 엄마와 같이 다녀보고 나서 해인사 원당암으로 제가 결정했어요.”

“여섯 살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후회해 본 적은 없는지 궁금하네.”

“절에 들어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오지 않았으면 큰 일 날 뻔했어요. 절이 편하거든요. 송광사에서 계도 받았어요. 주지스님이 안 계시면 제가 법당에 들어가 혼자 예불도 해요.”

“학교는.”

“오늘은 노는 토요일이고 전 문덕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나를 많이 따라요. <천자문>에 나오는 한자를 가르쳐주기도 하거든요.”

식별한 머리가 활짝 핀 수국 한 송이만 했다. 앞나는 유난히 하얗고 컸다. 대연 거사는 솔명 동자가 귀여웠지만 머리를 만지지 않았다. 계를 받은 사미승이기 때문이었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신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옹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 **7일 철야 옹맹정진** 여름·겨울 두 차례 운영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사람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들었으니 내 몸을 금생에 제도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 하리요.”
 - 해암 대종사 법어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